

한국뇌연구원, 레드윓과 블록체인 전자연구노트 개발 추진

- 다양한 국제협력 환경에서 뇌연구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VDR·스테가노그래피 기술 활용 연구보안성 강화

한국뇌연구원은 블록체인스타트업 레드윓과 손잡고 다양한 국제협력 환경과 뇌연구 특성에 적합한 ‘전자연구노트’ 개발에 나선다.

한국뇌연구원과 레드윓은 202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기술 검증(PoC) 지원사업에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달 협약을 맺었으며, 이달부터 블록체인 기반 융합 기술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은 레드윓이며, 한국뇌연구원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

레드윓은 허가형 블록체인 보안 체계를 통해 연구데이터 유실 방지 및 기록의 위·변조를 검증하며, 연구데이터와 연구 지식 및 노하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웹서비스(SaaS) 기반의 전자연구노트 서비스 ‘구노(GOONO)’를 제공하고 있다. 출시 3년 만에 약 1,300개가 넘는 기관과 기업이 사용하고 있어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업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레드윓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VDR(Virtual Data Room)과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더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연구환경에 따라 맞춤화가 가능한 구축형 전자연구노트 시제품을 한국뇌연구원에 제공한다. 한국뇌연구원은 제품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양 기관은 서비스의 성능과 효용성을 검증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뇌연구원 김형준 연구본부장은 “한국뇌연구원은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하면서도 보안성이 뛰어난 연구기록 환경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며 “기술력과 제

품 경쟁력이 뛰어난 레드윓과 앞으로 뇌연구에 맞는 고도화된 전자연구 노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드윓 김지원 대표는 “한국뇌연구원과 협력을 통한 기술검증 사업으로 한층 더 강화된 블록체인 보안 기술이 개발되길 바란다”며 “오픈 사이언스 시대에 연구데이터 공유를 통한 대규모 협력이 필수이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방대한 연구데이터가 오가도 보안에 문제없는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로 연구문화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붙임1

기관 로고

